

CEO Report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2014. 10

임준환·황인창·이혜은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요 약

올해 7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국내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2012년 발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장기부진 탈출 가능성을 평가해보고자 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베노믹스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장기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정책은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개혁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유사하게 보임. 하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아베노믹스와 달리 정부의 복지기능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거시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목표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임. 또한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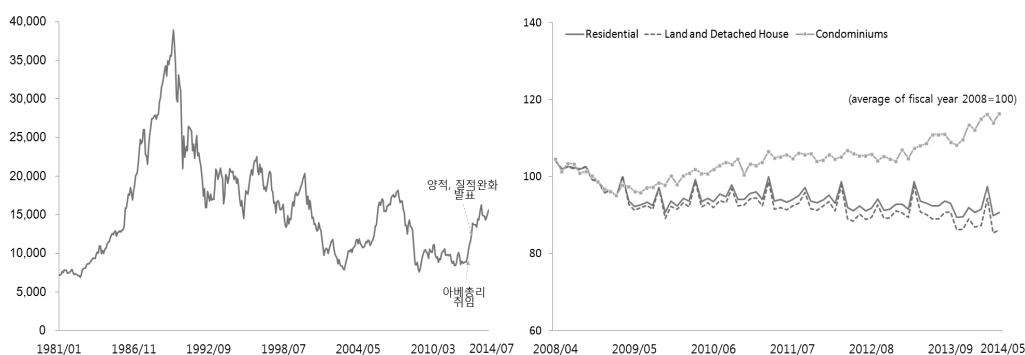
I. 검토배경	1
II. 아베노믹스 주요 내용	3
1. 통화정책	4
2. 재정정책	6
3. 산업구조개혁정책	6
III. 아베노믹스 평가	8
1.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존 평가	8
2. 기존 평가에 대한 재해석	9
IV. 결론 및 시사점	16
1. 아베노믹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6
2.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16
3.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비교	17
4. 아베노믹스가 최경환 새 경제팀에게 주는 시사점	18

I. 검토배경

■ 올해 7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아베노믹스는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경제성장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아베신조(安倍晋三)의 경제정책을 의미함.
 - 이를 통해 과거 20년 동안 이어진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라는 경제 부진으로부터 벗어나 재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본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음(그림 I-1 참고).
- 최근 국내 경제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식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의 경제상황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그림 I-1 일본 주식 시장(닛케이 지수)과 부동산 시장(부동산 지수)



자료: Bloomberg.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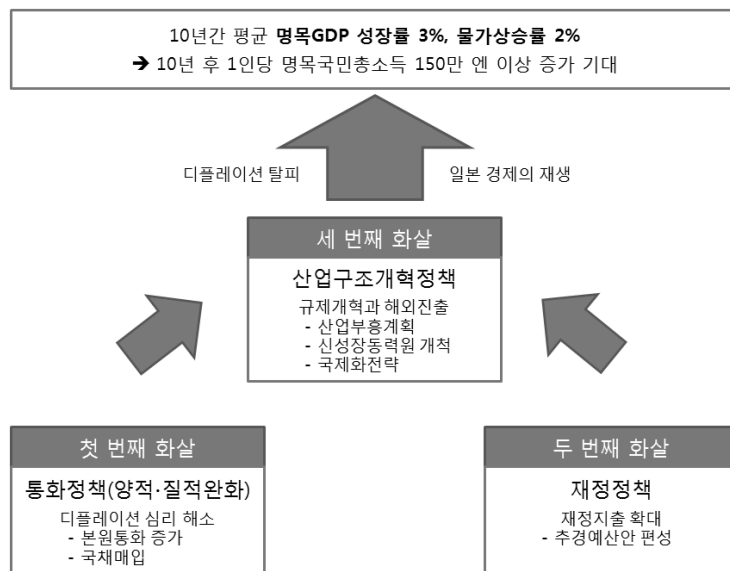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장기 부진 탈출 가능성을 평가해보고자 함.
 - 아베노믹스가 최근 일본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새 경제팀이 제시한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Ⅱ. 아베노믹스 주요 내용

■ 아베노믹스(2012년 발표)는 ①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② 공공 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③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 이른바 ‘3개의 화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그림 Ⅱ-1 참조).

-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2% 달성’으로, 이를 통해 10년 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 150만 엔 이상 증가를 기대함.

그림 Ⅱ-1 아베노믹스 주요 내용과 목표



자료: 일본 수상관저 자료(2013. 1)를 재구성함.

1. 통화정책

■ 일본은행은 ①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 상향조정, ② 무기한 대규모 자산매입, ③ 정부와 일본은행의 정책협조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통화정책을 발표함 (2013년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

-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년 내에 2% 목표로 상향 조정함.
- 2014년부터 매월 대규모의 국채를 무기한 매입할 방침임.
- 정부와 일본은행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책 공조에 대한 의지를 피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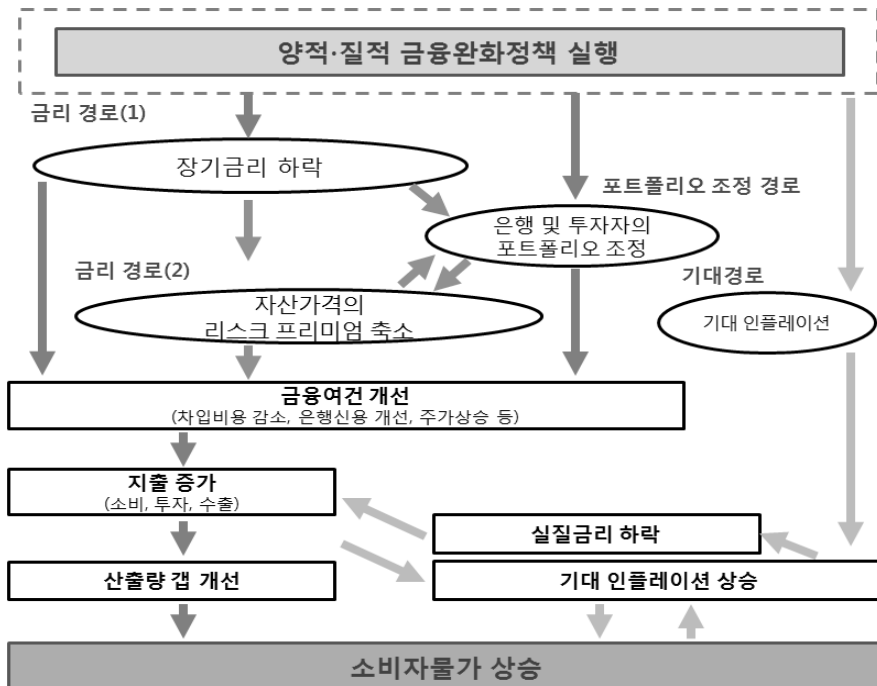
■ 이어서 일본은행은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하여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함(2013년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

-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량을 연간 60~70조 엔씩 증대하여 2012년 말 138조 엔에서 2014년 270조 엔으로 확대함.
- 장기국채 매입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함.
 - 장기 국채 보유잔액이 매년 50조 엔씩 증가하도록 매입을 확대함.
 - 장기 국채의 매입대상을 40년 채권까지 확대하고, 평균 잔존만기를 기존의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 상장지수펀드(ETF)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잔액이 각각 연간 1조 엔, 300억 엔씩 증가하도록 매입함.

■ 양적·질적 완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파급경로채널(금리채널, 포트폴리오 조정 채널, 기대채널)을 통해 금융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그림 II-2 참조).

- 금리채널: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으로 인한 장기 금리 하락이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신용수요를 확대함.
- 포트폴리오채널: 금융기관들은 일본은행의 보유국채 매입에 대응하여 위험 자산(대출, 주식, 외화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기대채널: 명목금리가 제로상태로 고정된 상태 하에서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실질금리가 하락함.

그림 II-2 양적·질적 완화(QQE)의 파급 경로



자료: 한국은행(2014), 「일본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국제경제리뷰.

2. 재정정책

- 경기부양을 위해 10.3조 엔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함(2013년 1월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 총 사업비 규모 20.2조 엔 중 재정지출 규모는 10.3조 엔으로, 지진복구 및 방재,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생활안전·지역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긴급경제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에 투입될 5.5조 엔은 신규 건설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함.
- 재정책대는 정부의 공공사업 실시를 통해 관련 분야 민간기업 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계소비 증가를 기대함.

3. 산업구조개혁정책

- 산업활성화, 전략적 시장 창출, 글로벌 진출 등 3개의 액션플랜을 통한 경제 부흥을 통해 과거의 고도성장을 재현하려는 신성장전략을 발표함(2013년 6월).
 -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 감소가 현저한 가운데,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 하게 됨.
 - 하지만, 법인세 인하, 고용규제 완화 등 재계 요구사항이 제외되고, 과다 하게 장기목표가 설정되거나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됨.

- 최근 아베 정부는 장기 안정적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성장전략을 수정·보강한 아베노믹스 2.0을 발표함(2014년 6월).
- 수정된 신성장전략에는 법인세 인하, 고용·농업·의료 분야의 구조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적연금의 자산운용방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됨.

Ⅲ. 아베노믹스 평가

1.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존 평가

- 시행 초기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단기적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만성적 민간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임.¹⁾
- 아베노믹스 시행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지난 후 발표된 보고서들에서는 시행 초기 때 우려했던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정책 효과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²⁾
 -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주가지수 전망은 일본 정부의 목표를 충족하기 어렵지만, 환율은 아베노믹스 효과를 볼 것으로 평가함.
 -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이 실현되기 전에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정부의 재정악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함.

1)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에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도입 배경과 주요 정책 내용을 위주로 소개하였음.

2) 국제금융센터(2013. 6),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평사 시각 점검」; 월스트리트저널(2013. 7. 3 기사), "Tokyo's New Economic Policy Mix Stirs Hope and Fear, Poll Shows - A Wall Street Journal Poll Shows High Marks for 'Abenomics', But Concern Over Durable Growth, Debt".

- 국내 연구들은 아베노믹스 거시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탈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³⁾
 -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과감한 거시정책 시행으로 인해 경기의 완만한 회복, 물가오름세 확대, 금융시장의 호전 등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함.
 - 하지만 최근 민간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이 미흡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일본경제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됨.
- 따라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일본 정부가 향후 제시할 장기 구조조정 및 성장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함.

2. 기존 평가에 대한 재해석

가. 개별평가

- 2014년 상반기까지의 일본 경제 상황을 토대로 한 아베노믹스 개별 정책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화살(통화정책)은 성공적임.
 - 두 번째 화살(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적이나,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가능할지는 불확실함.
 - 세 번째 화살(구조개혁)은 실행초기로 평가하기 힘들.

3) 한국무역협회(2013. 6), 「아베노믹스 6개월의 변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 11), 「日 아베노믹스 실시 성과 중간점검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 2), 「일본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아베노믹스의 실효성 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3),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 보고서」; 한국은행(2014. 6),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의 일본경제 주요 이슈 평가」.

표 III-1 개별정책 평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구조개혁정책
성공적	단기: 성공적 중·장기: 불확실	평가 유보

1) 통화정책

■ 양적·질적 완화 프로그램은 금리 및 기대채널 면에서 성공적임.

-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그림 III-1 참조).
 - 이로 인해 투자기회비용이 낮아져 투자지출 확대유인이 존재함.
-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목표수준(2%)을 하회하지만 최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추세임.
- 다만, 금융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성공적이라고 평할 만큼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표 III-2 참조).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은행 자산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감소하였지만,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증가함.
 - 생명보험사의 경우, 자산 구성비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음.

표 III-2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자산 구성비

(단위: %)

구분	은행				생명보험			
	2011	2012	2013	2014 7월	2011	2012	2013	2014 7월
현금	3.6	4.0	8.5	11.3	1.1	1.0	1.0	1.1
국채	19.2	18.3	14.8	13.6	43.7	43.6	42.6	43.5
지방채	1.6	1.6	1.5	1.4	4.0	4.2	4.1	4.1
회사채	3.8	3.6	3.4	3.4	7.9	7.5	7.2	7.1
주식	2.0	1.9	2.1	1.8	4.2	4.2	5.4	3.4
외화증권	3.7	4.8	5.4	4.8	13.8	15.9	17.4	17.6
대출	49.8	48.9	48.3	48.1	13.3	12.1	11.0	11.1
기타	16.4	17.0	16.0	15.6	11.9	11.5	11.2	12.1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2014년 1/4분기까지 경제성장률과 물가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⁴⁾

- 2013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년대비 다소 확대되었으며, 2014년 1/4분기에는 성장률이 5.9%(연율기준, 전기대비 1.5%)로 크게 반등함(그림 III-2 참조).
 - 민간소비가 소비세 인상을 앞둔 선수요 가세로 크게 늘어나고,⁵⁾ 수출 회복세도 다소 확대됨.⁶⁾
- 또한 2014년 1/4분기 GDP디플레이터 성장률이 0.1%를 기록하여 2009년 3/4분기 이후 4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남.

4) 2014년 2/4분기의 경우, 동 분기에 있었던 소비세 인상(2014. 4)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질 GDP성장률이 7.1%(연율기준, 전기대비 1.8%) 감소함.

5) 2012년 1.1% 증가 → 2013년 1.7% 증가 →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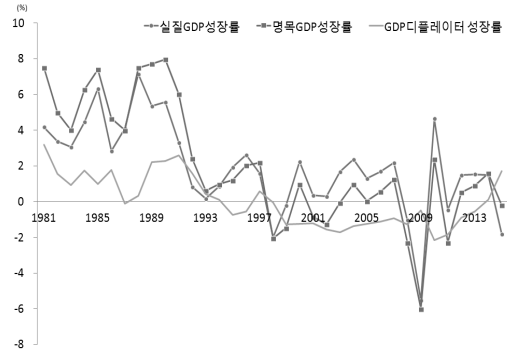
6) 2012년 2.7% 감소 → 2013년 9.5% 증가 →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6.6% 증가.

그림 Ⅲ-1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Ⅲ-2 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자료: IMF; 일본 내각부(2013).

■ 환율, 주가 등의 금융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대규모 양적 완화 효과로 엔화는 달러대비 약세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엔화의 약세기조는 수출에 기여함으로써 총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닛케이 지수는 일본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매입 확대로 인해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Ⅲ-3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Ⅲ-4 닛케이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2) 재정정책

■ 아베노믹스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양적완화정책과 더불어 단기적인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아베노믹스의 신축적 재정정책 목표는 단기적인 재정자극과 중기적인 재정재건인데, 현재까지는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그 결과 양적·질적 완화 통화정책과의 병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짐으로써 2013년 전반기에 연 4% 성장을 달성함.
 -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상승⁷⁾하고, 부동산 경기도 회복세임.⁸⁾
 - 6월 유효구인비율⁹⁾이 1.09로 1992년 이후 2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3.5%로 감소함.
- 하지만 중기적인 목표인 재정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데, 국가재정의 악화는 장기적으로 일본 국채의 신뢰도를 낮춰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불확실함.
 - 이러한 우려 속에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7) 2012년 1.4% → 2013년 1.5% → 2014년 1/4분기 전분기대비 1.6% 상승.

8) 도쿄, 나고야, 오사카 3대 도시의 공시지가 전년대비 1.6% 상승(6년 만의 상승세)하고, 올해 6월 말 현재 도쿄 도심 5개 구의 평균 오피스 공실률 6.45%로 12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2009년 3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

9) 구인자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3) 산업구조개혁정책

-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단기적인 대응이라면, 세 번째 화살인 산업구조 개혁정책은 장기적인 대응으로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며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 지속은 바로 이 세 번째 화살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음.
- 따라서 산업구조개혁정책에 대한 개별 평가는 유보함.
 - 산업구조개혁정책은 시행 초기로 아직까지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 판단이 어렵고, 정책효과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음.

나. 종합평가

- 아베노믹스가 장기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나타난 거시경제지표 및 금융지표의 호조는 일관된 정책에 따른 경제주체자의 심리개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로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베노믹스 거시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제기됨.
 - 아베 정부는 국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였지만, 과거 일본은 1997년 소비세율 인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음.

- 앞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아베노믹스의 장기적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고려한 일관적인 거시정책 유지
 - 구체적인 산업구조개혁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한 생산성 향상

IV. 결론 및 시사점

1. 아베노믹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는 원/엔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 부진과 경상수지 악화 등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한·일 간 무역거래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크게 ① 내수활성화, ② 민생안정, ③ 경제혁신으로 구성됨 (표 IV-1 참조).
- 내수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펼치는 한편, 가계소득과 기업 소득 선순환을 통한 소비 및 투자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함.
-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 및 여성 등 일자리 창출, 노사정 대화 복원 추진,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제언함.
- 경제혁신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경제민주화 추진, 해외진출 활성화, 농업의 미래 산업화 추진을 제시함.

3.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비교

■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 유사점

- 경제정책발표 또는 시행 초반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¹⁰⁾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함.

■ 차이점

- 아베노믹스는 ‘경제재건’에 집중한 반면, 최경환 새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와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민생안정’이라는 정부의 복지제공 기능도 함께 강조함.
-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은 거시정책목표의 구체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아베노믹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용이하고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였음.
 -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목표는 물가안정 유지와 경기회복의 공고화로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제시하지 않음.

10)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발표 이후로 KOSPI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함.

- (통화정책) 아베노믹스는 제로금리와 더불어 양적·질적 완화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통화정책 등의 과감한 정책 수단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재정정책) 아베노믹스는 아베 총리 취임 직후 13조 1000억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41조 원을 재정, 금융에 투입하기로 함.
- (산업구조개혁정책) 아베노믹스는 고용·농업·의료 분야의 구조개혁이 중심이지만, 최경환의 새 경제팀은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고용·서비스업 분야의 개혁에 초점을 맞춤.

4. 아베노믹스가 최경환 새 경제팀에게 주는 시사점

- 첫째, 거시정책목표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임.
- 정책목표의 구체화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정책목표가 불투명한 경우, 경제주체자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 현행 보수적인 기조(소비 및 투자의 심리위축)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시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거시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수단도 구체화해야 함.
- 또한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에는 중장기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time-consistency)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큼.
 -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은 올해 하반기와 2015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그 이후의 거시정책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경제주체자로 하여금 정책기조에 대한 신뢰성과 평판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둘째,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동시에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생산성 제고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음.
 - 실질 GDP 성장은 노동인구 증가와 생산성 증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정체되어 있음.
- 따라서 국가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 아베노믹스 실행 초기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 산업구조개혁정책이 제한적이고 거시정책에 비해 시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일본 경제의 회복세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함.

표 IV-1 최근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 비교

아베노믹스	구분	근헤노믹스	최경환 새 경제팀
평균 명목GDP 성장률 3%	정책목표	대한민국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① 통화정책 : 양적·질적 완화 ② 재정정책 : 재정지출 확대 ③ 산업구조개혁정책 : 규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수단	① 기초가 튼튼한 경제 - 공공부문 개혁 -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 사회안전망 확충 ②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창조경제 구현 - 미래대비 투자 - 해외진출 촉진 ③ 내수·수출 균형경제 - 내수(소비)기반 확대 - 투자여건 확충 -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① 내수활성화 - 확장적 거시정책 - 소비·투자여건 개선 - 주택시장 정상화 - 리스크관리 강화 ② 민생안정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지원 - 서민생활 안정 ③ 경제혁신 - 공공부문 개혁 - 규제개혁 - 유망서비스업 육성 - 해외진출 활성화
제로금리, 양적·질적완화	통화정책	연준 테이퍼링과 공조 (인상기조) 13개월째 금리동결 (연 2.5%)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신용정책 확대
확장 흑자재정 전환 도모 13조 엔 규모의 추경 편성 공공투자 확대	재정정책	경기 불씨 꺼지면 확장 17조 원 추경 편성(2013년 5월)	재정 12조 원, 금융 29조 원 '15년 예산도 확장편성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 드는 세제 개편
법인세 인하 고용·농업·의료분야의 구조개혁 국제화 전략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투자여건 확충 펀드를 통한 창업생태계 지원	공공부문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경제민주화 추진 해외진출 활성화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7. 24) 참고.

저자약력

■ 임 준 환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전략실 실장)
(E-mail : pricing@kiri.or.kr)

■ 황 인 창

KAIST 경영공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전략실)
(E-mail : ichwang@kiri.or.kr)

■ 이 혜 은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금융전략실)
(E-mail : lhe@kiri.or.kr)

CEO Report 2014-0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발 행 일	2014년 10월
발 행 인	강 호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3775-907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